

# 마방 자존심 걸렸다... 토종 경주마 최강팀은?

단거리 최강팀 서울 10조·부경 19조  
중거리는 서울 17조·부경 1조 우승  
10월 국산마 최강팀 격돌 불꽃 경쟁

조교사와 말관리사 등은 한 팀을 이뤄 자신의 마방에 속한 말들을 관리하고 훈련시켜 경주에 내보낸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경마의 팀 스포츠 요소를 알리고 경주마 훈련 수준 향상을 위해 2016년부터 최강팀 선발전을 시행하고 있다.

지정된 예선과 결선에서 경주마들이 고루 좋은 성적을 내야 1위를 차지할 수 있다. 단 몇 두의 경주마 성적으로 좌지우지 되지 않고 특정 경주마가 스타화되는 기존 경마 방식에서 벗어나 마방의 팀워크를 가리는 방식이다.

예선 4개 경주를 치른 뒤 1~5위 입상 마방에 승점을 부여하고, 상위 마방끼리 결선 4개 경주를 다시 치러 승점을 새로 부여한다. 현재 단거리와 중거리 최강팀 선발전을 마친 상태이며, 10월에는 국산마 최강팀을 가린다.

8월에 치러진 단거리 최강팀 선발전에서는 지난해 서울 최강팀 정호의 조교사의 10조가 다시 한 번 우승하며 녹슬지 않은 실력을 뽐냈다. 10조는 지난해 결선으로 지정된 5개 경주에서 3승 및 전 경주 입상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기



마방의 팀워크를 가리는 경마 최강팀 단거리 선발전에서 실력을 뽐내고 있는 서울 정호의 조교사(왼쪽)와 부경 김영관 조교사.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록했다. 올해 또한 단거리 최강팀 선발전 결선에 2번 출전해 우승 1번, 준우승 1번으로 1위를 달성했다.

서울 중거리 선발전에서는 김점오 조교사의 17조가 우승했다. 예선을 48개 마방 중 15위로 턱걸이 통과했으나, 결선에서 놀라운 뒷심을 보여주며 2경주만에 경쟁자 중 가장 높은 승점 97점을 쌓았다.

부경의 단거리 선발전 우승은 한국에

서 가장 유명한 조교사 김영관의 19조가 차지했다. 19조는 3년 연속 최강팀 선발전 우승팀으로, 그야말로 최강 팀워크를 자랑한다. 올해도 단거리 선발전 결선에서 적수가 없음을 재확인 시켰다.

부경 중거리 선발전에서는 1조가 가장 높은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1조를 이끄는 백광열 조교사는 올해 조교사 다승 순위 2위로 선전하며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상승세를 입증하듯 예선과

결선을 모두 1등으로 통과했다.

한국마사회는 조건별 3년의 선발전이 끝난 후, 각 선발전 상위 서울의 5개 팀과 부경의 4개 팀을 모아 12월 최강팀 종합 결선전을 펼친다. 또한 각 경마장별로 1위 1000만 원, 2위 500만 원, 3위 300만 원의 포상금이 걸려있다. 최강팀 선발전의 승점 현황은 한국마사회 경마정보 사이트(race.kra.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 우승 120억원 등 총상금 239억원 세계 최고 상금대회 사우디컵 신설

사우디아라비아 자키르컵이 세계 최고 경마 상금을 내건 사우디컵을 신설한다. 2020년 2월 29일에 리야드 소재 압둘라지드 왕 경마장에서 열리며 총상금 2000만 달러(약 239억 원)이다. 경주거리 1800m, 출전 두수 최대 14두의 dirt 경주다. 10위까지 순위상금을 지급하는데 우승마는 1000만 달러(약 120억 원)를 받는다. 현재 단일 경주 최고 상금의 경마대회는 두바이월드컵으로 총상금 1200만 달러(약 144억 원)이다.

## 2019년 제2차 서울마주 공개 모집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31일까지 2019년 제2차 서울마주를 모집한다. 모집 부문은 개인, 법인, 조합마주다. 개인마주는 개인의 명의로, 법인마주는 법인의 명의로 등록한다. 조합마주는 민법에 따른 조합계약을 체결해 조합원 구성원이 최소 5명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지원 가능하다.

## 불법경마 예방 홍보 동영상 공모전

한국마사회는 11월 24일까지 '내가 만드는 불법경마 예방 홍보 동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불법 경마의 폐해를 알리고, 건전경마 문화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30초 이내의 창작, 패러디,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등의 동영상이라면 어떤 장르든 상관없다. 응모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개인 및 팀 단위 모두 가능하다. 6편을 선정해 최우수작(1명) 300만 원을 포함해 총 1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당선자 발표는 12월 6일이다.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 스프링백 vs 모르피스... 1등급 경주마 대세는?

### 13일 서울 경마공원 제10경주

스프링백, 장거리 경주 첫 경험  
모르피스, 최고 몸값 증명 기대

3회 수득상금 1억 원이 넘는 대세 경주마 스프링백과 모르피스가 첫 맞대결을 펼친다. 13일 서울 경마공원 제10경주로 열리는 1등급 경주마들의 1800m 장거리 대결이다. 총상금은 1억1000만 원이며 연령과 산지, 성별 모두 상관없이 출전했다.

●스프링백(거, 3세, 미국, 레이팅 95, ㈜디알엠씨티 마주, 안병기 조교사, 승률 36.4%)  
데뷔 후 11전 모두 4위 안에 드는 꾸준한 성적이 특징이다.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3번의 경주로 약 1억2000만 원의 상금을 획득했다. 국제경주 코리아 스프린트에 도전해 해외 강자들과 겨뤄 4위를 했다. 일반 경주에서는 줄곧 2위 내 성적을 유지해왔지만, 장거리 경주는 처음이다.

●모르피스(거, 4세, 미국, 레이팅 102, 박남성 마주, 이관호 조교사, 승률 29.4%)  
출전마 중 가장 높은 몸값인 약 1억

9000만 원에 도입됐다. 올해 5번 출전해 3위 밖으로 한 번도 밀려난 적이 없다. 4월부터 8월까지 3번 출전해 상금 약 1억 원을 수득했다. 특히 4월 1800m 경주에서 워너골드, 독도지기 등의 강자를 누르고 우승했다.

●선라이팅(수, 4세, 미국, 레이팅 95, 이신근 마주, 서범석 조교사, 승률 29.4%)  
3월 1800m 경주에서 모르피스, 로드위너 등 인기마를 상대로 깜짝 우승을 차지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게이트 번호에 상관없는 빠른 출발이 특기로 선행마의 저력을 보여줄 것인지 기대가 높다.

●토스코노바켓(수, 4세, 미국, 레이팅 102,

표종순 마주, 최용구 조교사, 승률 27.8%)

1800m가 적성거리로 7번 출전해 3번 우승, 2번 준우승을 거뒀다. 종반 추입이 특기이며 9월 1800m 경주에서도 종반 그룹에서 힘을 아끼다가 마지막에 폭발하듯 속도를 내는 작전으로 2위와 1과 1/2마신 차의 승리를 했다.

●나스카프린스(수, 5세, 한국, 레이팅 94, ㈜나스카 마주, 송문길 조교사, 승률 35.3%)  
통산 17회 출전 중 한 번만 제외하고는 모두 순위상금을 받았다. 지난해 스포츠조선배 3위, 일간스포츠배 2위 등 장거리 대상경주 성적도 좋다. 5월 최강거리 2300m 경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선두를 유지하는 압도적인 승리로 활약했다. 정용운 기자



## 농구토토 스페셜 21·22회차 게임 연속 발매

12월 3개 경기·13일 3개 경기 대상  
'더블' '트리플' 최종 득점대 맞히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12일(토)에 펼쳐지는 2019~2020시즌 국내 남자프로농구(KBL)을 대상으로 농구토토 스페셜 21회차와 22회차를 연속해서 발매한다고 밝혔다.

국내프로농구 KBL이나 국제대회 등을 대상으로 발매하고 있는 농구토토 스페셜 게임은 지정된 2경기(더블게임) 및 3경기(트리플 게임)의 최종 득점대를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득점대는 69점 이하, 70~79점, 80~89점, 90~99점, 100~109점, 110점 이상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최소 100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스페셜 21회차의 대상경기는 12일 오후 3시에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원주DB-서울SK(1경기)전을 비롯해, 오후 5시 고양체육관에서 벌어지는 고양 오리

온스-울산 현대모비스(2경기)전, 그리고 같은 시간 부산사직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부산 KT-서울 삼성(3경기)전이 선정됐다. 발매 시작은 10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이며, 첫 번째 경기 시작 10분 전인 12일 오후 2시 50분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이어지는 22회차는 다음날인 13일(일) 오후 3시에 벌어지는 창원 LG-원주 DB(1경기)전과 안양 KGC-서울 SK(2경기)전, 그리고 오후 5시에 열리는 부산 KT-인천 전자랜드(3경기)전으로 농구팬을 찾아간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시즌 개막 후 점차 열기를 더해가는 프로농구와 함께 농구토토 스페셜이 농구팬을 찾아간다"며 "새로운 시즌을 맞아 달라진 전력과 새로운 선수 등을 면밀히 분석한다면, 적중이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구토토 스페셜 게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케이토토 홈페이지(www.ktoto.co.kr) 및 공식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팅맨(www.betma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현대캐피탈-대한항공 'V리그 개막전 빅매치'

배구토토 매치 45회차 게임 발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12일(토) 오후 2시 천안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리는 2019~2020시즌 V리그 개막전 현대캐피탈-대한항공전을 대상으로 배구토토 매치 45회차를 발매한다.

이번 매치 게임에서는 지난 시즌 우승팀인 현대캐피탈과 순천 KOVO컵에서 5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한 대한항공이 올 시즌 정규리그 첫 경기에서 맞붙는다.

특히 이번 시즌의 경우 컵대회에 이어 지난 시즌과는 다른 새 공인구가 도입됐고, 비디오 판독 역시 강화되는 등 커다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선 새로운 규정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매치 게임 적중률 상승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새 시즌을 맞은 프로배구와 함께 배구팬들의 열렬한 동반자 배구토토 역시 발매를 시작한다"며 "올 시즌에도 프로배구 흥행 도우미인 배구토토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45회차는 경기시작 10분전인 12일(토) 오후 1시50분에 발매가 마감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 스포츠토토-국민체육진흥공단 제주서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와 함께 지난달 25일(수) 제주도에 위치한 복권판매점 10곳의 판매점주와 고객들을 대상으로 '7차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올 한 해 동안 여섯 번에 걸쳐 캠페인을 진행한 케이토토는 이날 역시 제주도 지역의 판매점주에게 스포츠토토 판매 규정을 준수하고 고객을 대상으로 과몰입 유도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건전윤영서약서'에 서명을 받았다. 또 판매점을 방문한 고객들에게는 소액으로 건전하게 투표권을 구매하라는 '건전구매서약서'에 약속을 받았다.

이날 캠페인에 동행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정문화팀은 건강한 스포츠레저문화를 위해 서약서에 서명을 한 점주와 고객들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하고, 도박중독 예방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로 캠페인을 함께 했다.